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수 신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장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진주불교대학포교사회(진포회)의 진정서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본단이첩

1. 귀의삼보 하옵고, 불법홍포를 위해 정진하시는 포교사단 단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5년 12월 경남지역단 진주총괄팀장 인선과 관련하여, 도현 김기준 포교사가 내정된 것에 집단으로 반발하여 진포회 회원의 연대서명 진정서를 포교원과 포교사단에 제출함으로서 지역단 운영에 분란을 초래한 사건에 대하여,

3. 포교원에서는 연대서명 진정서 제출에 대하여,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불기2544(2000)년10월31일 제정공포) 제19조(제적) 4항(포교사단 내에 분란을 일으켜 분규를 조장한 자)”에 해당함을 인지(황철기차장 통화)하고, 연대서명자 개인에게 2016년 1월중 1차와 2차 소환기한을 정하여 포교원에 직접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소환요구에 단 한명도 응하지 않았으며,

4. 그 이후, 포교원에서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불기2544(2000)년 10월 31일 제정공포) 제23조(소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다)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했지만, 포교원 주무행정관 황철기차장의 사직으로 인하여 후속조치가 없었기에,

5. 경남지역단에서는 2016년2월부터 5월까지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의에서 후속조치 실행을 결의한바, 지난 2016년5월29일 집단연대서명 진정서를 제출하여 분란을 일으킨 진포회에 “2016년6월10일까지 진포회를 해체하고, 회원들의 해체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으며, 반대로 진주불교대학장으로부터 본 건과 무관한 내용의 항의성 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6. 현재 진주지역의 상황으로서, 총괄팀장은 공석이며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고, 해체통보 이후, 보문팀장 도범 허종도 포교사는 “진포회의 중심에 있으므로 보문팀장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단 카페에 게시하여 분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현재 정관 및 운영지침상 지역단에서는 조사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진주불교대학포교사회(진포회)의 진정서관련 후

속조치를 본단으로 이첩하오니, 경남지역의 원활한 포교활동을 위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포회 연대서명진정서 집단행동관련 1부. 끝.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장



문서번호 경남지역단 제 2016-S016호 시행 2016. 06. 22
우 5147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54-1 (성주동 135-3)
전화 055-262-1180 전송 055-263-1180

[첨부 : 진포회 연대서명진정서 집단행동관련]

진포회 연대서명진정서 집단행동관련

2015년 12월 경남지역단 진주총괄팀장 인선과 관련하여, 도현 김기준 포교사가 내정된 것에 집단으로 반발하여 연대서명 진정서를 포교원과 포교사단에 제출함으로서 지역단 운영에 분란을 초래한 사건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2015년 12월 중순, 2016년 진주총괄팀장으로 도현 김기준 포교사 내정

- ▶ 2015년 12월 중순, 진주총괄팀에 소속된 지역단 운영위원(부단장, 감사1인, 진주총괄팀장, 보문팀장, 직지팀장, 나라연팀장, 목련팀장) 및 총괄팀 총무, 9명 중 8명(나라연팀장 원각 이일구 불참)이 참석한 진주총괄팀 회의에 참석하여, “총괄팀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진주총괄팀에서 추천하는 포교사를 차기 총괄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도현 김기준 포교사를 추천하여, 도현 김기준 포교사가 차기 진주총괄팀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 ▶ 총괄팀장의 선정과정은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4조 2항” 및 “포교사단 정관 제51조(지역단 임원의 임기와 자격) 3항(총괄팀장은 지역단장이 임명한다.)에 어긋남이 없었으며, 총괄팀회의를 통해 추천을 받음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총괄팀장의 자격으로서 도현 김기준 포교사는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4조 1항(자격요건) 및 제26조 1항(임원선임 공통요건)” 및 “포교사단 정관 제17조 (자격), 제26조 (임원선임 공통요건) 및 제50조(지역단 임원선임) 2항(임기와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2. 2015년 12월 중순, 2016년 진주총괄팀장으로 도현 김기준 포교사 내정에 반대하는 진포회의 연대서명 진정서 제출

- ▶ 2015년 12월 중순, 2016년 진주총괄팀장으로 도현 김기준 포교사 내정에 반대하는 진포회의 연대서명 진정서를 포교원, 포교사단 및 지역단에 제출하였습니다.
- ▶ 진정서의 주된 내용으로서
 - 도현 김기준 포교사가 총괄팀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하며 총괄팀장으로 불가하다.
 - 현 김기준 포교사는 진주불교대학 출신(3기)으로 불교대학 동문회장 재임시 불교대학 학장 스님이신 성공스님을 비난하고 불교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불교대학과 인연을 끊고 냉정하게 떠났다.

- 김기준 포교사는 총괄팀장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선 과정에서 기존 각 팀장들을 모두 소집하지 않았으며 불참자에게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았으며, 일부 몇 명만 모여서 결정을 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재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향후 2 년간 전면 포교사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 ▶ 2015년 12월, 진주불교대학 학장 성공스님으로부터 2회, 당시 진포회 회장 수정 정우영으로부터 2회의 전화를 받았으며, 통화내용은 위 진정서 내용과 동일함
- ▶ 진정서 첨부
 - 첨부 1-1 : 포교원에 제출한 연대서명 진정서
 - 첨부 1-2 : 포교사단에 제출한 진정서
 - 첨부 1-3 : 경남지역단에 제출한 진정서

3. 2015년 12월말, 연대서명 진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진주총괄팀 회의 실시

- ▶ 2015년 12월말 연대서명 진정서 관련으로 총괄팀회의를 소집, 진주총괄팀에 소속된 지역단 운영위원과 차기팀장 4명이 참석, 차기 지역단장이 직접 주재하였음
- ▶ 회의 시작과 동시, 토론의 여지도 없이 만장일치로 김기준 포교사의 진주총괄팀장 선임에 재동의가 있을 즈음, 나라연팀 팀장 원각 이일구 포교사가 늦게 회의에 참석하여 총괄팀장 선정에 문제를 제기함.
- ▶ 원각 이일구의 주장으로서, 포교사로서의 문제제기는 없었으며, 김기준 포교사의 개인 신상(가정사, 사업부도 등)을 비하하는 발언만 함으로써 몸싸움이 벌어지고 회의가 중단되었고, 차기 단장에게 "총괄팀장을 그대로 선임한다면 진포회 회원들은 포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협박하고는 회의 장소에서 나갔음
- ▶ 이후, 만장일치로 김기준 포교사의 진주총괄팀장 선임에 재동의가 있었음

4. 2016년 1월, 연대서명 진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지역단장 소명서 제출

- ▶ 연대서명 진정서 관련으로 포교원과 본단 단장님의 요청으로 지역단장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 소명서 첨부
 - 첨부 2 : 진주포교사회의 진정서에 대한 해명 및 김기준 포교사에 대한 소명

5. 2016년 1월, 도현 김기준 포교사 진주총괄팀장으로 임명

- ▶ 2016년1월1일, 도현 김기준 포교사를 진주총괄팀장으로 임명
- ▶ 2016년1월16일, 2016년 1차 경남지역단 정기운영위원회의에서 도현 김기준 포교사를 진주총괄팀장으로 임명을 결의함, 정관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운영위 결의로 임명을 확고히 하고자함.

6. 2015년 12월말, 진정서 연대서명자에 대한 소환 및 소환불응

- ▶ 2015년 12월말, 연대서명 진정서 제출에 대하여, 포교원에서는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불기2544(2000)년10월31일 제정공포) 제19조(제적) 4항(포교사단 내에 분란을 일으켜 분규를 조장한 자)”에 해당함을 인지(황철기 차장 통화)하고, 연대서명자 개인에게 2016년 1월중 1차와 2차 소환기한을 정하여 포교원에 직접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음.
- ▶ 2016년 1월, 소환요구에 단 한명도 응하지 않았으며,
- ▶ 그 이후, 포교원에서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불기2544(2000)년 10월 31일 제정공포) 제23조(소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다)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했지만, 포교원 주무행정관 황철기 차장의 사직으로 현재까지 후속조치 전무한 상태임.

7. 2016년 1월말, 진주총괄팀장 사퇴서 제출

- ▶ 2016년1월25일, 도현 김기준 포교사의 진주총괄팀장 사퇴서 제출
- ▶ 2016년2월, 설(구정) 인사차 지역단 임원의 성공스님 방문 시, 김기준 사퇴서 수리에 대한 압력이 있었음.
- ▶ 2016년2월 2차 정기운영위원회의가 쌍계사에서 있었으며, 도현 김기준 포교사도 참석하였음. 이는 사퇴서가 자의가 아님을 증명함

8. 2016년 1월말, 진주총괄팀장 사퇴서 제출

- ▶ 2016년1월25일, 도현 김기준 포교사의 진주총괄팀장 사퇴서 제출
- ▶ 2016년2월, 설(구정) 인사차 지역단 임원의 성공스님 방문 시, 김기준 사퇴서 수리에 대한 압력이 있었음.
- ▶ 2016년3월, 3차 정기운영위원회의 기타토의에서 진주총괄팀장 사퇴서 수리를 결정. 긴급심의안건으로 진주총괄팀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적임자 없음. 진주총괄팀은 지역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
- ▶ 그 이후, 진주총괄팀장은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음
- ▶ 2016년3월23일 진주총괄팀회의 지역단장 주관으로 실시, 심우팀장 도명심 김향숙을 진주총괄팀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함

9. 경남지역단의 대응 및 경과

- ▶ 2016년3월, 정기운영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진포회의 진정서 제출”건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제안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 ▶ 2016년4월, 1차 임원회의(운영위원회의 대체)에서 “진포회 진정서관련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여 “지역단장과 상별위원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는 동의가 있었으며,
- ▶ 2016년5월, 4차 정기운영위원회의에 1차 임원회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
- ▶ 2016년5월21일, 지역단장과 상별위원이 협의
 - 공문으로 “진포회 해체통보”를 보내기로 함
 - 6월10일까지 해체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동의가 없을 경우, 본 건 전체를 본단으로 이관한다.
- ▶ 2016년5월29일, 진포회 해체통보 공문(내용증명)으로 발송
 - 첨부 3 : 진포회 해체통보 공문
- ▶ 2016년6월1일, 성공스님으로부터 “진주불교대학과 경남지역단의 전쟁을 선포한다” 전화를 받음
- ▶ 2016년6월4일, 진포회 회장이었던 수정 정우영이 지역단장에게 “스님.....참고하십시오”라는 문자가 옴. 이는 진포회가 성공스님의 지시를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함
- ▶ 2016년6월 초, 진주불교대학장(성공스님) 명의의 반박 공문받음 - 포교원, 포교사단 본단, 지역단장 집, 진주총괄팀 직무대행 집
 - 첨부 4 : 진주불교대학장(성공스님) 명의의 반박 공문
- ▶ 2016년6월11일, 5차 정기운영위원회의 기타토의에 “진주불교대학장(성공스님) 명의의 반박 공문”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 진주불교대학에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므로 진포회와 관련한 공문을 받을 이유가 없음
 - 공문의 내용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 본 건을 조속히 본단으로 이관하여 포교사단 차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건을 조속히 본단으로 이관하여 포교사단 차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첨부 5 : 진포회 존재

첨부 1-1 : 포교원에 제출한 연대서명 진정서

진 정 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법홍포와 중생교화를 위해 애쓰시는 포교원과 포교국장스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소속으로 현재 각 팀에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진주불교대학동문 포교사로서 자체적으로 천석 쌓기와 토굴 정진스님 돕기 김장행사와 염불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동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의 불자교수님들을 초빙하여 매월 인문학강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무료급식사업까지 준비하고 있는 진주지역 포교사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진주불교대학 출신 포교사들입니다.

포교국장님께 아뢰올 말씀은 금번 진주지역 총괄팀장 인선과 관련하여 부처님 법도에 어긋남은 물론 상식에도 벗어나는 일이 일부 인사들로 인해 자행되어 감히 서신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차기 총괄팀장으로 내정된 도현 김기준 포교사가 총괄팀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하며 총괄팀장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국장스님께 세 가지의 아래 사유를 들어 진정서를 올립니다.

첫째

현재 진주총괄팀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도현 김기준 포교사는 진주불교대학 출신(3기)으로 불교대학 동문회장 재임 시 불교대학 학장 스님이신 성공스님을 비난하고 불교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불교대학과 인연을 끊고 냉정하게 떠났습니다. 스님을 비방함은 곧 삼보를 비방함인데 불제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아직도 스님께 참회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고로 스승님들께서 지식은 들고 지혜는 나누어라 고 말씀하셨는데 김기준 포교사는 아상만 높아질 때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종교지도자로서 자격 없음이 첫째요

둘째

길상지 최인숙 포교사님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본인도 총괄팀장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현재 김기준 포교사는 총괄팀장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인선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되지 않는 것이 둘째요

셋째

인선 과정에서 기존 각 팀장들을 모두 소집하지 않았으며 불참자에게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았으며 진주지역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신임 사단장님과 일부 몇 명만 모여서 결정을 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반대하는 셋째 이유로 저희들이 재 인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포교사의 기본임무는 불법을 홍보하고 삼보를 수지함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삼보를 비방하여 부처님 법도를 어지럽히고 지역에서 말썽을 빚은 인사를 지역 불교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훼손함은 물론 불교 내부에 큰 도적을 키우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김기준 포교사역시 성공 학장스님에게서 오계를 받은 제자로서 1. 성공 학장스님(삼보)을 끝까지 반목 비난하고 2. 총괄팀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3. 인선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에 김기준 포교사를 저희들은 진주지역 총괄팀장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며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성공 학장스님께서는 누구보다 노심초사 진주불교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진주지역에서 많은 포교사가 배출이 되는 것은 10여 년 전 성공스님이 주축이 되어 지역스님들이 설립하신 불교대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또한 매년 포교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포교사 또한 진주불교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스님을 비방하고 묘교인 진주불교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아직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

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동문포교사들과 화합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저희 진주불교대학출신 포교사들의 절박한 마음이오니 굽어
살피시어 진주총괄팀장 인선을 부처님 법도와 상식에 맞게 정리해주시
고 지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 이 서신을 올립니다.

저희 진주지역 진주불교대학출신 포교사들은 말씀드린바 와 같이 재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향후 2년간 전면
포교사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부디 재 인선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합장

끝으로 추운 날씨에 스님의 강건하심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스님
과 함께 하시기 서원합니다.

2015 년 12 월 18 일

진주지역포교사 일동

* 기수표기는 포교사 기수임이다.

진정인 서명부

번호	기수	법명	성명	연락처	서명
1	19	노복	최종석	010-3885-0571	최종석
2	17	절각행	조정숙	010-5203-8343	조정숙
3	19	모리수	강민주	010-4034-8889	강민주
4	13	불도화	최현옥	010-3840-1150	최현옥
5	19	노복	장동영	010-3874-2403	장동영
6	19	정도	최인희	010-3887-1176	최인희
7	20	물국신	정수연	010-5326-2257	정수연
8	19	원만성	최경숙	010-9274-2405	최경숙
9	20	법보행	이기영	010-3814-2414	이기영
10	19	대명화	이미정	010-3878-8391	이미정
11	20	전환	손영하	010-3864-3031	손영하
12	17	윤행	고형태	010-7557-7573	고형태
13	19	수자	장우영	010-8274-8002	장우영
14	19	지단	김지우	011-577-4018	김지우
15	19	법보행	김장영	010-9648-0455	김장영
16	19	홍안	김도성	011-867-6521	김도성
17	~	홍안	홍안(이소영)	010-8201-389	홍안
18	16	원각	이일구	010-3870-8685	이일구
19	19	정진행	김이희	010-2647-0721	김이희
20	19	일심행	정남경	010-9488-8028	정남경
21	19	선정각	김석이	010-7723-5263	김석이
22	20	태산	소종영	010-3668-9794	소종영
23	20	화법성	김미영	010-3275-0885	김미영
24	20	경담	김진배	010-9348-7774	김진배
25	20	경원	김광호	010-3875-6671	김광호
26	20	관음정	이하정	010-6767-6151	이하정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첨부 1-2 : 포교사단에 제출한 진정서

진 정 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법홍포와 중생교화를 위해 애쓰시는 포교원과 포교국장스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소속 진주지역 거주 포교사들로서 아뢰을 말씀은 금번 경남지역단 진주불교대학 출신들입니다.

진주지역 총괄팀장 인선과 관련하여 부처님 법도에 어긋남은 물론 상식에도 벗어나는 일이 자행되어 감히 서신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주총괄팀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도현 김기준 포교사는 진주불교대학 출신(3기)임에도 불교대학 동문회장으로 재임시 불교대학 학장스님이신 성공스님을 비난하고 불교대학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성공스님께 참회한바 없습니다.

더욱이 김기준 포교사는 10수년 전 사업부도로 지역에서 물의를 야기한바 있습니다.

포교사의 기본임무는 불법을 홍포하고 삼보를 수지함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삼보를 비방하여 부처님 법도를 어지럽히고 지역에서도 말썽을 빚은 인사를 지역 불교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은 부처님의 위신력

을 훼손함은 물론 불교 내부에 큰 도적을 키우는 일에 다름 아니라 사
료됩니다.

특히 성공학장스님에게서 오계를 받은 저희 진주불교대학 출신 포교사
들은 학장스님을 끝까지 반목 비난하는 김기준 포교사를 진주지역 총
괄팀장으로 받아들이기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저희 진주지역 불교대학 출신 포교사들은 저희들의
절박한 마음을 굵어 살피시어 진주총괄팀장 인선을 부처님 법도와 상
식에 맞게 정리하고 지도해주시기 간절히 바라와 이 서신을 올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스님의 강건하심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스님
과 함께 하시기 서원합니다.

2015. 12. .

진주지역포교사 일동

포교국장스님 귀중

첨부 1-3 : 경남지역단에 제출한 진정서

제1	Fax:055	2016년12월23일 08:35 P601/004
진 정 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법홍포와 증생교화를 위해 애쓰시는 포교원과 포교국장스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소속으로 현재 각 팀에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진주불교대학동문 포교사로서 자체적으로 천석 쌓기와 토굴 정진스님 돕기 김장행사와 염불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동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의 불자교수님들을 초빙하여 매월 인문학강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무료급식사업까지 준비하고 있는 진주지역 포교사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진주불교대학 출신 포교사들입니다. 포교국장님께 아뢰을 말씀은 금번 진주지역 총괄팀장 인선과 관련하여 부처님 법도에 어긋남은 물론 상식에도 벗어나는 일이 일부 인사들로 인해 자행되어 감히 서신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뢰을 말씀은 차기 총괄팀장으로 내정된 도현 김기준 포교사가 총괄팀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하며 총괄팀장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국장스님께 세 가지의 아래 사유를 들어 진정서를 올립니다.		
- 1 -		

첫째

현재 전주총괄팀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도현 김기준 포교사는 전주불교대학 출신(3기)으로 불교대학 동문회장 재임 시 불교대학 학장 스님이신 성공스님을 비난하고 불교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불교대학과 인연을 끊고 냉정하게 떠났습니다. 스님을 비방함은 곧 삼보를 비방함인데 불제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아직도 스님께 참회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고로 스승님들께서 지식은 들고 지혜는 나누어라 고 말씀하셨는데 김기준 포교사는 아상만 높아질 때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종교지도자로서 자격 없음이 첫째요

둘째

길상지 최인숙 포교사님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본인도 총괄팀장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현재 김기준 포교사는 총괄팀장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인선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되지 않는 것이 둘째요

셋째

인선 과정에서 기존 각 팀장들을 모두 소집하지 않았으며 불참자에게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았으며 진주지역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고 제시
는 신임 사단장님과 일부 몇 명만 모여서 결정을 한 것은 규정을 위반
한 것이기에 반대하는 셋째 이유로 저희들이 재 인선을 요구하는 것입
니다.

포교사의 기본임무는 불법을 홍보하고 삼보를 수지함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삼보를 비방하여 부처님 법도를 어지럽히고 지
역에서 말썽을 빚은 인사를 지역 불교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은 부처님
의 위신력을 훼손함은 물론 불교 내부에 큰 도적을 키우는 일이라 사
료됩니다. 특히 김기준 포교사역시 성공 학장스님에게서 오계를 받은
제자로서 1. 성공 학장스님(삼보)을 끝까지 반목 비난하고
2. 총괄팀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3. 인선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에 김기준 포교사를 저희들은 진주지역 총괄팀장
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며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성공 학장스님께
서는 누구보다 노심초사 진주불교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진
주지역에서 많은 포교사가 배출이 되는 것은 10여 년 전 성공스님이
주축이 되어 지역스님들이 설립하신 불교대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이고 또한 매년 포교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포교사 또한
진주불교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스님을 비방하고
포교인 진주불교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아직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

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동문포교사들과 화합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저희 진주불교대학출신 포교사들의 절박한 마음이오니 굽어
살피시어 진주총괄팀장 인선을 부처님 법도와 상식에 맞게 정리해주시
고 지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 이 서신을 올립니다.

저희 진주지역 진주불교대학출신 포교사들은 말씀드린바 와 같이 재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향후 2년간 전면
포교사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부디 재 인선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합장

끝으로 추운 날씨에 스님의 강전하심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스님
과 함께 하시기 서원합니다.

2015 년 12 월 18 일

진주지역포교사 일동

경남지역 단장님 귀중

포교국장스님 귀중

첨부 2 : 진주포교사회의 진정서에 대한 해명 및 김기준 포교사에 대한 소명

진주포교사회의 진정서에 대한 해명 및 김기준 포교사에 대한 소명

2016. 01. 06

작성자 : 현덕 김위영

1. 진정서에 대한 해명

1.1 진주지역총괄팀장 인선관련

진주지역총괄팀장 인선에 대하여 불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관 상으로 총괄팀장의 임명권은 지역단장에게 있으나 지역총괄팀의 원활한 포교활동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총괄팀회의로 추천되어지는 불자를 임명하겠다고 지역총괄팀에 통보하였고, 진주지역총괄팀의 회의에서 추천되어진 김기준 포교사를 총괄팀장으로 임명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에 상반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법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논리로 따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1.2 성공스님 비난관련

“도현김기준 포교사는 진주불교대학 동문회장 재임시 학장스님(성공스님)을 비난하고 불교대학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역단장이 직접 경험한바 아니어서 진주지역 여러 포교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김기준 포교사는 학장스님의 의견을 받들어 크고 많은 일들을 감내하여 왔으나 학장스님의 과도한 요구와 불교대학 및 동문회를 사유화하려는데 대한 약간의 반감과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김기준 포교사의 사업부도 관련

이 부분 또한 지역단장이 직접 경험한바 아니므로 진주지역 여러 포교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 부분은 김기준 포교사의 개인적인 일이고, 부도가 날 당시 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일명 진주포교사회가 개입할 문제가 아닐 것이며, 오히려 이런 말들을 언급하며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불법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1.4 불법홍포 삼보수지 관련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바, 도현 김기준 포교사는 진주지역의 그 어떤 포교사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포교활동을 하고 있고, 김기준 포교사는 진주지역의 많은 스님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써 삼보 중 승보에 대한 수지(예경)는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5 학장스님을 끝까지 반목 비난관련

조사한 바로는, 김기준 포교사가 동문회장을 그만둔 이후로 몇 번이나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성공스님께서 만나주지 않았었고, 김기준 포교사가 성공스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으며, 성공스님에 대해서는 묵언으로 일관해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김기준 포교사에 대하여

2.1 김기준 포교사의 사업부도

1998년 IMF 당시, 거래처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로서, 사업자의 부도덕성 등이 없었음을 그의 재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IMF에 나라가 흔들리고 기업이 도산하는 혼란에서부터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모두 정리하고 맨손으로 재기는 과정을 들으며 목이 잠기고 눈에는 눈물이 맺히는 진실된 모습의 그를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의 부도, 이는 개인의 사생활이기도 하고, 종교생활과 무관하다 할 수 있으며, 종교가 있었기에 부도처리과정 또한 투명하였던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흠잡아 비방하고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야 말로 불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 김기준 포교사의 진주불교대학관련 활동내역

- 2008년 진주불교대학 졸업
- 진주불교대 이사로 활동, 초급반 인원모집 전력, 초급반 예불 및 집전봉사
- 포교사 관련 : 포교사 번호 : A3-54-0279
전문포교사 번호 : A4-57-0004
- 2009년 진주불교대 동문회결성 주역
- 2010년 진주불교합창단 및 염불봉사단 결성
- 2013년 진주불교대 동문회장 역임

- 수상 : 진주불교대 동문회 감사패,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감사패,
공군교육사령부 사령관 감사패

2.3 김기준 포교사의 신행 및 포교활동

- 매월 2주 토요일 자비참회법회 지도봉사
- 매주 화요일 19시 공군교육사령부법회 지원
- 매주 일요일 오전 남해하동 군법회 지원
- 매주 일요일 오후 사천항공대법회 지원
- 매주 일요일 저녁 군인가족법회 지원
- 매주 수요일 저녁 사천항공고등학교 학생법회 지원
- 매일 새벽예불

3. 지역단장 소견

3.1 성공스님 관련

지난 12월 초순과 중순 2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2회 모두 “김기준 포교사를 총괄팀장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으며, 그 이유로 “김기준 포교사가 총괄팀장이 된다면 진주지역의 대다수 포교사가 활동을 하지 않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준 포교사가 무엇을 잘 못하였는지 4가지 이야기를 들었으나 김기준 포교사를 비롯한 진주지역의 포교사들로부터 이에 대한 소명을 들어 보았을 때, 일반상식으로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것이 불법에 반한다고 판단하고는, 성공스님께 “이 문제는 스님과 한 포교사와 개인적인 문제이고 포교사단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이 문제로 포교사단에는 연락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알았다 그러면 포교원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 진주불교대학 및 대학동문회의 사유화, 진주불교대학 출신 포교사(18, 19, 20기 포교사 일부, 일명 진주지역포교사회)를 사유화하려는 의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 김기준 포교사와 개인적인 마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단장의 입장에서, 김기준 포교사의 진주지역총괄팀장 임명은 정관, 사회윤리나 도덕적 측면 및 불법으로 비추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그의 신행생활이나 포교활동 및 진주지역운영위원들의 지지정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총괄팀장으로서의 자질도 완전하다할 것입니다.

3.2 진주지역포교사회 관련

2015.12.18. 진주지역포교사회 회장 수정 정우영 포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진주지역포교사회에서 김기준 포교사의 총괄팀장 선임에 대한 토론모임을 하려는데 참석을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조직의 모임에는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아울러 정관에 없는 사조직을 결성하여 분란을 일으킬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지역포교사회의 이름으로 포교원과 지역단에, 김기준 포교사를 비하하고 폄하하여 총괄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정서를 보내는 것으로 분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진정서의 연대서명을 위한 모임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 성공스님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불러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지역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으나, 진주지역의 포교사와 김기준 포교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정시기에 적절한 제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단장 현덕 김위영 올림

첨부 3 : 진포회 해체통보 공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수신	: 진주불교대학포교사회(진포회) 회장
참조	:
제목	: 진주불교대학포교사회(진포회) 해체통보

1. 귀의삼보 하옵고, 진주불교대학포교사회(진포회)에 소속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님께서는 포교사단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주불교대학포교사회는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장 11조 ③의 4항 및 8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의 조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진주불교대학포교사회는 즉시 해체하고, 첨부된 해체동의서에 회원들의 해체동의서명을 받아서, 2016.06.10.까지 진주총괄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해체동의서명에는, 2015년 12월 포교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서명한 포교사 26명을 포함한 모든 회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5. 아울러,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장 11조 ③의 4항 및 8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해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기한내에 해체동의서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포교사단 정관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장



문서번호	경남지역단 제 2016-S013호 시행 2016. 05. 29
우	5147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54-1 (성주동 135-3)
전화	055-262-1180 전송 055-263-1180

첨부 4 : 진주불교대학장(성공스님) 명의의 반박 공문

대한불교조계종 진주불교대학

수 신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장(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54-1) 김유형 단장님

경 유 :

제 목 : 진주불교대학포교사회(진포회)해체통보에 관한건

이 우편물은 2016-06-07
제 362190301050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진주삼대동우체국장

1. 귀의상보 하옵고 귀 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경남지역 단 제 2016-S013 호(2016.05.29.) 호와 관련입니다.
3. 본 불교대학 에서는 포교사반을 운영하여 그동안 100여명 이상의 포교사를 양성 하였습니다.
4. 이들 중 약 70 여명이 현재 각 팀에서 회비를 납부하면서 활동 중입니다.
5. 또한 이들 포교사들중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어서 친목단체로서 본 불교대학의 취지와 포교방법 에따른 봉사를 중심으로,
6. 매년 부처님오신날(Happy Day) 천석 쌓기 운동을 전개하여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으며,
7. 토굴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위하여 김장나눔 행사
8. 2016년 5월부터는 무료급식소(나눔의집)를 개설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약 50~ 100여명 정도의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 이러 하온데 본 진주불교대학 포교사회 소속 회원들은
첫째, 단비를 납부 않은 적도 없으며,
둘째, 소속팀의 활동 또한 대부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셋째, 귀단의 활동에 위해를 가한적도 없으며,
넷째, 귀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훼방을 놓지도 않았으며,
다섯째, 몇 번이나 여러 루트를 통하여 지역 포교 팀을 신설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무시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단에서 본 대한불교 조계종소속 불교대학의 활동에 대하여 해체운운 하는 것은 오히려 귀 단체가

1. 정관 제2조 (목적)

본단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종풍을 받들고 불타의 교법을 널리 흥포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불교조

계종 포교법에 의하여 배출된 포교사들의 불법홍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불국
정토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를 어긴 것이며.

2. 제18조 (포교활동팀의 신설, 통합, 분할, 폐지)

① 새로운 분야의 포교활동을 위한 팀의 신설은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5일
이내에 본단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며

3. 귀 단체가 주장한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1조 (징계사유)

① 항 (경고) 5.호 (포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② 항 (자격정지) 6.호 (포교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③ 항 (제적) 3.호 (종무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4.호 (본 단 내의 분란을 일
으켜 분규를 조장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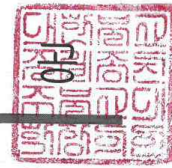
④ 항 (자격박탈) 2.호 (삼보를 비방하고 종단의 위상을 훼손한 자.)
등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첫째, 귀 단체에서 무슨 법을 근거로 본 불교대학의 친목단체회원들을 검박하는
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 단체에서 무슨 법을 근거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본 불교대학의 친목단체를 해
체하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러 귀 단의 이러한 행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귀단의 이러한 행
위는 본 불교대학에 대한 월권행위임을 인지하시어 사과하여 주시기를 요구 하는 바입
니다.

대한불교조계종진주불교대학장 성



담당 : 진주불교대학 사무장 권부현 (010-8866-4892) E-MAIL: cjk7392@hanmail.net

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진주불교대학

우 : 52795 / 진주시 동진로 148 3층

전화 : 055-759-1080 팩스 : 055-759-1086

첨부 5 : 진포회 존재

Daum 카페 자주가는 카페 메일 블로그 텃 로그아웃 카페업 설치

진주불교대학&동문,도반모임

사물편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너를 만났거였어..



진주불교
식물 (공개)
카페지기 진주불교대학
회원수 419
방문수 28

카페업수 15 프로필

내 정보

카페 가입하기



☆--- 공 지
☆--- 스 님 소 식
☆---진주지역불교행사
☆---가입인사/등업요청
☆---도반님이 운영해요



경남 진주시 망경로 234 (GS편의점 옆 지하1층)

안녕하십니까?

귀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울 말씀은 진주불교대학 동문 및 전·후배님들과
진주 불교 발전에 애써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주불교대학 무료급식소 나눔의집 개소식』을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줄 아오나 부디 귀한 걸음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불교대학포교사회 일동
(진 포 회)

개소일시 : 2016년 5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후원계좌 농협 302-0935-2825-41 예금주 : 김창욱(진포회 사무장)
문의. 010-3292-4028(지안 김지우) * 환한 일채 사절 합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40 ~ 12:40♥

카페에서 알립니다

[진포회 회원명단]

- 진정서에 연대서명 명단 기준임

순번	포교사 기수	포교사번호	법명	성명	비고
1	19	A3-58-0729	도범	허종도	
2	18	A3-57-0418	정각행	조정숙	
3	19	A3-58-0637	보리수	강민주	
4	13	A3-52-0195	불도화	최선옥	
5	19	A3-58-0636	도행	강동용	
6	19	A3-58-0727	청도	최인규	
7	20	A3-59-0692	불국심	정수연	
8	19	A3-58-0639	원만심	권경숙	
9	19	A3-58-0693	법연행	이기영	
10	19	A3-58-0696	대명화	이기정	
11	20	A3-59-0686	정관	송성우	
12	17	A3-56-0367	원행	오형태	
13	19	A3-58-0719	수정	정우영	
14	19	A3-58-0654	지안	김지우	
15	19	A3-58-0655	보현행	김창옥	
16	19	A3-58-0711	용담	임도섭	
17	20	A3-59-0691	천제	임을섭	
18	16	A3-55-0179	원각	이일구	
19	19	A3-58-0641	정진행	김미희	
20	19	A3-58-0731	일심행	한영임	
21	19	A3-58-0644	성정각	김설이	
22	20	A3-59-0687	태난	송종문	
23	20	A3-59-0682	호법심	김미영	
24	20	A3-59-0683	경담	김정배	
25	20	A3-59-0684	남천	김종호	
26	20	A3-59-0690	관음정	이하정	